

민선8기, 자연특별시 무주로!

황인홍 군수, 민선8기 1주년 맞아 '무주다움 완성' 위한 10대 핵심추진 전략 밝혀

황인홍 무주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3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무주다움'을 완성해 자연특별시 무주를 각인 시키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지난 1년이 민선 7기 성과에 더해 무주다움을 키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믿고 보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상품 무주를 만드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10대 핵심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3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무주다움'을 완성해 '자연특별시 무주'를 각인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을 통한 청정 생활환경 조성,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을 품는 무주 조성, △군민과 소통하는 자치, 공감하는 행정 추진,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정치시대 실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한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이 마주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 맞서 변화·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요로운 무주의 미래를 향해 민선8기 무주호에 달린 희망의 뜻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춘성 진안군수, 민선8기 1주년 맞아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 조성 계획 밝혀

전춘성 진안군수는 3일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진안군을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현정의 목소리를 듣는 지역경제인과의 소통간담회, 노인회 방문, 직원과의 소통·공감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3일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진안군을 대한민국 제1의 친환경 생태 건강 치유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 도시 조성으로 6차 산업 집중 육성 △진안군 최대 수혜인 풍부한 산림생태와 자원을 활용한 힐링 치유 도시 조성 △진안읍 소재지 활성화로 쾌적한 깨끗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1년은 군정 비전인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나가는 미

래 진안'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소통, 변화, 성장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과 행정을 살피고 계획도시, 경제육성 등 6대 군정지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소회를 밝히며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안군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생생마을 콘테스트 휩쓸어

전북도 3개 분야 3팀 모두 최우수상 수상 쾌거

진안군은 지난 6월 29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만들기분야(백운면 원동창마을)와 농촌만들기분야(마령면), 우수활동가 분야(정전면 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3팀 모두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 고취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운면 원동창 마을은 경험 없이 큰사업을 추진한 후 실패를 딛고 다시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점 밝게 변하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와 마을영화 제작, 민주적인 이장선거, 마을기금 배분, 사 진 교실 등 행복한 마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령면은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인 마령활력센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마령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교육·생활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자립과 자생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사례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신설된 우수활동가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인 학동마을 심효진 사무장은 2014년부터 10년째 학동마을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최명근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가 레스토랑, 마을 축제,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요 중심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을 방문객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정도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31대 송주섭 부군수 취임

제31대 송주섭 신임 장수군 부군수가 3일 취임했다.



신임 송 부군수는 별도 취임식 없이 최후식 장수군수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송주섭 부군수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장수군에서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인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식 군수님을 비롯한 장

수군 공직자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위한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익산 출신인 송 부군수는 1992년 익산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전라북도 총무과, 행정지원관실, 예산과를 거쳐 전북방문팀장, 국가예산팀장, 일자리경제팀장을 역임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업지원과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전라북도 대외협력과장을 거쳐 2023년 7월 장수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위원회 임시총회 가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0일 장수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김홍기 추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축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개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023년 축제 관련 뉴스 및 사회적 이슈 등을 공유하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운영 시 추진위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의암호 및 누리파크 일대에 4만 여 명의 국화를 심어 아름답게 장식할 예정이며, 누리파크 일원은 가족체험마당의 테마로 설정하고 가족들의 즐길 거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진안군은 3일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청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군정 참여 확대를 실천하고 군정 주요 정책 결정 시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을 뜻한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진안군 일반현황 및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원장 호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군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최신동향과 전문적 지식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군차원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등 정책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영성씨(주천면, 62세)는 "소통을 강화해 군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진안군은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재정분권 등 지방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주 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로 도내 지방세 담당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이날 발표대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발표한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김요한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주무관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